

## 박근혜 대통령님께 올리는 탄원의 글

탄원인 곽춘규 (010-3737-7004)

내 하나님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아 5장 19절 말씀)

난관과 역경을 참으로 놀라운 인내와 결단으로 헤치고 나오셨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슬아슬한 곡예와 같은  
국내외 정세와 환경의 역습, 더하여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까지 쉴 새 없이  
몰려드는 난국을 용기 있게 돌파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야 민생에 전념하시며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의 물고를 트는 모습을  
보며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간직해 오던 소원을 간청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을 오존의 폐해에서 구해주고, 그러는 와중에 인생의  
항로가 바뀌어 사법변혁을 기치로 한걸음씩 전진하며 이루어 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사법개혁이나 사법변혁에 대하여 정부에서 깊이 관여 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십여 년간 저를 극심하게 괴롭히고  
생계수단까지 황폐하게 피해를 입혀온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여정부 초기부터 시작된 음이온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은 이명박 정부를 지나 현 정부에 이르기 까지 장장 1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처음 5년 그리고 또 5년 다시 3년이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제가 사는 동네, 제 사업장이 있는 한 구역은 거대한 영화 세트장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감시자 정보원 사범 프락치 등이 아주 고정간첩처럼 한 동네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올해 2015년 들어서면서 몇몇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교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사건인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은 참여정부에서 교묘하게 은폐한 사건입니다. 물론 피해를 주는 제품은 나중에 규제를 하였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대해서는 공권력과 사법권을 악용하여 강제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후 정치 이념이 다른 이명박 정부 때는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잊을 수 없는 박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 억울한 일은 소원을 써서 광화문 소원성취의 나무에 걸어 달라는 말씀과 친히 억울한 사례를 풀어주신 예화까지 들을 때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녹는 듯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상황과 사법변혁으로 인한 감시와 견제에 더하여 참여정부 때부터 이 사건을 은폐하는데 온 힘을 다 쓰고 있는 세력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을 받게 되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단 한시도 쉴 틈 없는 기막힌 상황들 속에서 모든 역경을 이기시고 한시름 놓으신 지금에서야 사법변혁의 절대성과 우리 국민을 오존에서 구해주고 그로인한 부패사범무리의 치졸한 보복적 판결로 아버지의 땅과 재산까지 강탈당한 사건에 대하여 울리게 되었습니다.

## 1. 사법변혁의 절대성

국가의 근간이랄 수 있는 법질서의 회복이 사법변혁의 주목적입니다. 사법변혁은 정부의 국정개혁과 맞물려 이루어질 때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법변혁은 어렵고 복잡하거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하여 영업허용"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서비스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이 사법변혁입니다

이 단순한 법안 하나가 온 나라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브레인을 가동하시어 시뮬레이션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 시뮬레이션 팀에 법조인은 제외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ㄱ. 교육계

대한민국의 고질병이라는 입시 문제와 교육, 학원시장이 직접적인 변화를 받고 가장먼저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북유럽의 선진교육 제도를 수입하지 않더라도 부작용 없이 자연스런 한국식 교육모델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교육의 과열 경쟁과 과잉투자, 혼란스런 대학입시제도 문제까지도 제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 ㄴ. 경제계

도미노의 효과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며 한국경제의 동맥경화와 비대지방 등 경제 체질을 한방처방과 같이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경제계 전반이 도미노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며,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생명인 자율과 공정이라는 균형추가 사법변혁 즉 시장경쟁을 통하여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전반의 신뢰가치 변화로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가 변화되어 경제 면역력이 향상되고 국제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침체되어 있는 국내 경제와 내수를 끌어올리는 동인이 될 것입니다. 국소적으로 사법시장에 새로운 수요와 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법률개방에도 대비하게 됩니다.

#### ㄷ. 정치계

제한적 배급제식 사법시장(독과점)에서 자유경쟁 사법시장으로 변모함에 따라 공정성과 사법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른 부정부패가 줄어들 뿐 아니라 구태적인 정치행태가 새로운 공정시장 원리 (완전 경쟁)에 맞추어 변화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ㄷ. 그 외 사회, 문화, 외교, 국방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도미노 게임과 같은 변화의 물결이 흘러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가질서와 자율, 그리고 경쟁에 이르는 모든 국민의 삶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변화와 창조를 맞는 새 시대의 문화융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당면한 새로운 시대의 도전과 시련 앞에서 사법변혁이 갖는 절대적 당위성입니다.

## 2. 음이온오존공기청정기 사건과 아버지의 사륜 오토바이 사건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사법변혁 십년으로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 매장 사무실이 있는 동네도 거대한 세트장처럼 변했습니다.

저의 사건을 은폐한 세력들은 이렇게 한 동네를 영화 세트장으로 만들면 영구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지를 지키듯이 십년을 사수한 이유는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가고 또 진실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원하지 않는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불법적 도청과 감청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수많은 감시자, 정보원, 프락치들이 왔다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서 감시하며 인터넷과 통신까지 도감청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설마 공식적인 정부기관원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첨부서류-2014.3. 보내지 못한 탄원서2 - 박근혜 대통령님께 )

문제는 이들로 인하여 제가 업무를 볼 수 없고 생계의 문제까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 이상 증거를 잡아서 신고하거나 고소를 정식으로 하여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해(2014년 3월)에는 고소장을 접수 했는데 5개월을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그 후 민원신고를 하자 직무유기로 2명이나 수사된 사건을 남부지검에서는 단 하루 만에 기각시켰습니다. 항고했으나 통지서도 보내주지 않고 기각 처리합니다.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은 훨씬 더 , 열배이상, 심각했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음이온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에서 저의 재산을 빼앗고 감방에 보내려던 사법부내의 일련의 불법사조직이 (좌파성향) 목적달성을 이루지 못하자 아버지의 재산을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결국 전 재산의 반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버지의 4륜 오토바이 사건의 실체>는 음주를 했다는 약점을 잡아 가해자 피해자를 바꾸고 일련의 판사와 검사들이 계획적으로 재판에 지게 하여 재산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한 검사(주민철)는 이 사건을 기각시켜놓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이 국가의 기관이랄 수 있는

검사와 판사들이 수십 명이 공모를 하듯이 작당하였고, 뻔한 거짓말은 인정해주고 분명한 증거는 기각하는 수법으로 결국 5년 만에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증거서류 2-한상대 전 검찰총장 진정서)

저의 부모님께서서는 못한 아들을 원망하기 보다는 지금도 빼앗긴 그 강원도 봉평에서 이모님 댁 음식점 일을 도우며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어서 와서 빼앗긴 집과 재산을 찾는 날만을 하루 하루 고대하며 지친 노구를 달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지만,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이 제가 제출한 서류가 아니라 재판중의 공판 기록과 증거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불법사조직의 범행으로 사법부의 소관 같지만 행정부의 수반이신 대통령님께서 공정한 수사를 독려해 주시면 의외로 쉽게 모든 사건이 풀려 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련의 불법사조직 사법카르텔에 관계된 검사들 몇몇이 요소요소에서 사건을 기각하여 무마시키면서 불법적 청탁을 주고받음으로 연계조직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백방준 검사를 보겠습니다. 백검사는 2003년에 이미 약식기소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데 똑같은 사실로 또 기소하여 병합처리 받게 하고, 벌금300에 약식기소 된 사건이라 제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백검사의 불법적 이중 기소로 병합 처리되어 벌금 300의 재판이 벌금 300과 징역 6개월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 재판장은 얼마 후 옷을 벗었습니다. 2003년 3월 kbs 9시 뉴스를 통하여 음이온오존 공기청정기의 소비자 피해경고를 보면서도 백검사는 저를 이중으로 기소하였고 "만약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자신이 모두 책임을 진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 후 2005년 9월 추적60분을 통하여 치명적인 피해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 법무부의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고 한술 더 떠서 이명박 대통령 사건까지 맡게 되고 예견했던(!) 결정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임기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처리(?)로 좌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범죄 증거를 은폐하고 또 항고되는 사건을 기각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즉 호구를 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춘천지검 항소부 차장자리입니다. 강원도에서 올라오는 모든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권자 자리입니다. 제가 빼앗긴 아버지 재산을 다시 찾으려면 영월지검을

통해야하고 당연히 항소(?)하면 춘천 항소부로 갑니다. 중수부의 수사도 결국은 이 춘천 항소부를 거쳤습니다. 이들이 이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2012년 대선직전에 한상대 검찰총장의 검찰초유의 하극상 사건이 벌어진 것과 2013년 9월 우리법연구회 와해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략)

(첨부서류-2014.3. 보내지 못한 탄원서2 - 박근혜 대통령님께 )

그 외 주민철검사, 손태근검사 등은 <증거서류 2 - 한상대 전 검찰총장 진정서>에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2002년 우리 국민을 오존 공기청정기의 폐해로 부터 구해내고 사법부패사조직의 보복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기기 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공기청정기 사건 5년, 아버지 사륜오토바이사건 5년 이렇게 10년 동안 저도 저의 명예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6번 정도 불을 보듯 분명한 증거로 정식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불같은 증거를 보고도 단 한 번도 기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2005년 추적 60분을 통하여 전국에 생방송이 된 핵심 증거를 보고도 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제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던 번호를 찾아달라고 고소했고, 그 신고했던 번호가 전국에 생방송이 되었는데도 증거불충분이라며 기각한 것입니다. 음이온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제가 이긴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증거서류 1 :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사건의 첨부 1)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십년동안 계속된 재판 중에 제가 이긴 사건에서 조차도 고소를 하면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일련의 검사들이 저의 피해를 방치하고 범죄자들의 편을 들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제 편을 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불효의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사법변혁이 이루어져야할 당위성이기도 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저는 우리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를 막아 내었습니다. 또 사법변혁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 가야 할 길이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서 정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한국경제를 견인

하였듯이 사법변혁은 고도압축 성장으로 지쳐있는 한국경제를 다시 한번 견인하여 선진강국으로 비상하는 견인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저에게 바램이 있다면 불법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고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한 동네가 영화 세트장이라고 표현하면 과장일까요?

지금도 작은 저의 매장에서는 인터넷과 통화, 대화 등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인터넷 사용과 사무업무를 보기 위해서 pc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이 인터넷 시대에 말입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감시당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감시자들을 수사해 주시고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년이 넘도록 장기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 거의 고정간첩(?) 수준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큰 ,먹을게 많다는 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세 부류(참여정부, 사법프락치, 소비자원의 관계자)는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반부패부에서 잘 수사해 주시겠지만 또 다른 경로로 2중 수사를 하여 씨실과 날실이 옷감을 완성하는 것과 같이 탄탄한 구도로 배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국가정보원 수준의 정보보안차원에서 2차로 심층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서류 -2014.3. 보내지 못한 탄원서2 - 박근혜 대통령님께)

(참여정부 고위 인사들이 관여하여 은폐한 사건인데, 정부가 바뀌면서 외연에서 부패사범 무리들과 프락치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교묘히 십 수 년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버지의 빼앗긴 땅과 재산을 찾을 수 있게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법관들을 포함하여 십 수 명의 관검사들이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음이온오존 공기청정기 사건>과 <아버지의 4륜 오토바이사건>이 5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났지만 이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 서류 - 보내지 못한 탄원서2 >는 2014년 3월 초에 써놓고 대통령님께 부치지 못한 탄원서입니다. 두 사건의 연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사실로 서술되었습니다.

박대통령님께서 하시는 4대 국정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잘 완수되시길 기도 하겠습니다. 역사교과서에 대한 저의 단견을 말씀드리면

‘성경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술되었다는 것과 나쁜 일일수록 더욱 사실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역사도 사실대로 기록되어 성경과 같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루는 Bible 이 되길 또한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비 고비 마다 용기를 잃지 않으시고 담대한 결정으로 헤쳐나가는 박대통령님을 보면서 저도 마음을 굳세게 다잡고 나아갑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셔서 자랑스런 따님이 되시고 국민의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첨부서류 - 탄원서2 : 2014년 3월 작성하고 보내지 못한 탄원서  
(두 사건과 한상대 검찰총장, 우리법연구회 관련 내용)

증거서류 1 - 음이온오존 공기청정기 사건  
첨부1 - 첨부 7

증거서류 2 - 한상대 전 검찰총장께 올린 진정서  
첨부서류1: 최초 목격자 전 ~~박근혜~~ 고소장  
첨부서류2: 사륜 오토바이 사건의 부당한 판결탄원  
(박근혜 대통령의 한나라당 총재시절탄원)

2015. 10. 31

탄원인 곽춘규 올림



# 박근혜 대통령님께 올리는 탄원서1

탄원인 곽춘규 올림